

약함의 선교

TMTC 15기 김은진

선교 관련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야 하는데 여러 권의 책 중에서 약함의 선교를 선택하게 되었다. 이 책의 제목이 나에게 끌림을 제공한 이유는 약함이라는 단어가 나에게 의미있게 다가왔기 때문이다. 그 누구보다도 재능도 없고, 열정도 부족하고, 체력도 약한 내가 선교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과연 나는 선교훈련을 왜 받고자 하는 것일까? 끌림과 부담감이 나를 일단 TMTC 훈련에 함께 하게 만들었다. 나는 약함에 끌리고 선교에 일단 끌림을 받고 있긴 한 것 같다.

이 책은 이영 선교사님께서 에콰도르 땅을 처음 밟을 때의 새내기 선교사로서의 기도편지와 일기를 책으로 정리해 낸 글이다.

이 책을 읽으며 감동적이고 공감 많이 되었던 부분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나누고 싶다. 선교란 무엇인가? 선교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라 했다. 보고 싶어도 참고, 그림움을 마음에 담고 살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걸으셨기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셔야 선교사로서의 첫 걸음을 이기며 적응할 수 있다고 했다. 나도 선교에 나가고 싶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내가 그동안 함께했던 사랑하는 사람들과 떨어지고 싶지 않은 이유가 크다. 함께 마음도 음식도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함께 했던 믿음의 동역자들과 떨어지고 싶지 않은 이유가 크기 때문일 것이다. 주님과 교제를 더 기쁨으로 여기는 자세가 필요할 듯하다.

선교사는 선교지의 생활에서 아무도 통제하지 않은 이유로 자유로운 삶이 가능해서 때로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살 수 있다. 제어와 통제가 안되는 자유로운 삶은 선교사를 방황하게 만든다. 그리스도인은 한순간 한순간을 정말 깨어서 소중하게 살아야 한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절제하며 살아야 한다. 깨어 있는 영성을 위해 매일 영성훈련과 체력훈련, 휴식, 자기계발 돈관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비단 해외 선교지에서의 선교사로서의 삶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지켜야 할 삶의 태도이긴 하지만 선교사라는 것은 보는 눈이 많지 않기에 더욱 하나님 앞에서 사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선교사로서의 축복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선교사로서 천국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이 큰 동기가 되었다.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선교사가 본국에 산다면 현지인들의 고통을 경험하기 어려울 텐데 주님이 인간이 되셔서 함께 사신 것처럼 그들과 함께 살면서 현지인들의 어려운 삶을 보고 경험할 수 있어서 천국이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가난으로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를 생각하면서

주님께 절규 할 수 있는 곳이기엔 천국이다 라는 말씀이 마음 깊이 동의가 되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곳이기엔 천국이다. 무엇보다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인간의 고통과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에 천국이다. 고난 당하신 주님을 묵상하며 고난의 주님과 함께 살기에 천국이다. 그런면에서 모든 선교지는 다 동일하게 가난과 고통과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 문제를 복음으로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칠 수 있는 모든 선교지가 선교사에게 다 천국이다. 그래서 선교사의 삶은 고난이 아니라 축복의 삶이고 혜택의 삶이다. 선교사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위해 살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린다면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린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복음 가운데, 복음으로 사는 지금 이곳에 천국인 것이다. 나도 이번 선교 훈련을 통해 천국의 삶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다. 지난 경험을 돌아보면 단기 선교를 갈 때마다 힘든 점도 있지만 그들이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볼 때 나도 덩달아 행복해짐을 느끼게 된다. 함께 함이 나의 마음을 천국으로 만들어 주는 것 같다.

선교사는 전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다 믿는 선교자의 선교지에서 신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도 하는 사람이다. 열린 지역, 복음이 들어간 지역에 선교사가 들어가 말씀을 가르칠 수도 있고 선교사 훈련을 할 수도 있다. 현지인 지도자를 양육할 수도 있다, 선교에 대해 너무 좁게 생각하지 말고 전 세계를 선교지로 보는 안목이 필요하다. 온세계에 나가야 할 더 많은 선교사가 필요한 것이지 선교사를 복음이 더 필요한 곳에 재배치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더 많은 선교사를 발굴하는 일에 에너지를 쏟는 한국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다. 나는 과연 선교지에 간다면 어떤 선교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본다. 보내는 선교사들의 헌금이 나를 통해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을까? 나는 선교사님들을 돕는 선교, 현지인들을 돕는 선교를 하고 싶다. 나는 선교사로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심 같이 그들과 똑같이 되어, 함께 하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느낄 수 있을 것인가? 이영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 선교사의 삶을 좀 더 가까이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